

PEOPLE

2025년 7월 4일 금요일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초기투자유치 스프린트 추진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기업의 투자유치 성공을 위한 전략적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초기투자유치 스프린트’를 다음달까지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신청기업 10개사 대상 집중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인 ‘First IR’을 시작으로 실전 중심의 IR 피칭, 전문가 맞춤 컨설팅, BM 고도화, 자금조달 전략 수립 등 초기 기업에 필요한 투자 역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상용 광주창경센터 대표는 “초기 스타트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하기 위해 아이템의 혁신성과 글로벌 진출 가능성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안전보건공단 전남동부지사 ‘안전일터 조성의 날’ 행사 개최

안전보건공단 전남동부지사는 3일 여수산단 내 롯데베르살리스 엘라스토머스주에서 산업현장의 안전의식 고취 및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일터 조성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여수시청, 고용노동부 산재예방 지도과, 여수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롯데베르살리스 엘라스토머스 임원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안전보건공단 전남동부지사는 롯데베르살리스 엘라스토머스 안전보건 활동 사례를 발표하고,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물, 바람·그늘, 휴식, 보냉장구, 음급조치) 현장점검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광주 서부경찰 수사2팀 국수번호 평가 ‘최우수팀’ 선정

광주 서부경찰 수사와 통합수사2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경제범죄수사활동 평가에서 최우수팀으로 선정됐다. 3일 서부경찰에 따르면 통합수사2팀은 전국 경제범죄수사활동 평가에서 2025년 1분기 최우수팀에 이름을 올렸다. 평가는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민생경제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서 수사팀, 시도경찰청 중요경제범죄수사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수사2팀은 우수한 수사활동 실적, 적법절차 준수, 수사 완결성, 신속처리 등의 정량지표를 비롯해 우수한 수사활동을 펼친 공로가 인정돼 전국에서 총 10개 팀만 선정하는 최우수 수사팀으로 뽑혔다. 서부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에게 사랑과 공감 받는 경제범죄 수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

광주고려인마을, 무연고 동포에 ‘온정의 손길’

우즈베키스탄 동포 질병으로 사망… 병원·장례비 자체 모금 “가족 없는 고려인들 많아… 공동체 역할 묵묵히 감당하겠다”

광주 고려인마을 공동체가 무연고 동포의 장례를 위해 힘을 모았다. 3일 고려인마을에 따르면 최근 우즈베키스탄 출신 고려인 동포 손니콜라이씨(40)가 질병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당시 손씨는 알코올중독과 폐질환으로 장기치료가 필요했지만 건강보험료를 수년간 미납해 무보험 상태였다. 임원 하루 만에 발생한 병원비만 270만원에 달했고, 장례를 치르는 데 필요한 비용도 300만원에 이르렀다. 하지만 손씨를 결여서 돌볼 가족은 없었다. 10여년 전 손씨의 형도 고속버스에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에 고려인마을 지도자와 주민들은 병원비와 장례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체 모금을 진행하고, 복잡한 무연고 장례 절차를 마무리했다. 무연고 고려인 동포의 마지막을 마을공동체가 끝까지 함께한 것이다. 이러한 귀환 동포의 돌봄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고려인마을에는 가족과 연락이 끊긴 채 홀로 생활하거나 알코올중독과 질병으로 일 자리를 잃고 침터에 머무는 동포들이 많다. 이들 중 상당수가 건강보험료 미납 등으로 무보험 상태에 놓여있어 갑작스러운 치료와 수술이 필요할 경우 마을이 대신 부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지난 2022년 입국한 장보프르씨는 입국 후 6개월 만에 질병으로 쓰러져 현재까지 병원에 장기 입원 중이다. 이에 고려인마을은 장씨의 치료비 마련을 위해



광주 고려인마을 공동체가 무연고 동포의 장례를 위해 힘을 모았다.

애쓰고 있다. 신조아 고려인마을 대표는 “조상의 땅으로 돌아왔지만 가족이 없는 고려인들이 여전히 많다”며 “이런 장례 지원이 반복될수록 마을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지만 공동체의 역할이기에 묵묵히 감당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서구, 한국서비스품질지수 5년 연속 1위 ‘쾌거’

행정서비스 부문 ‘최우수 자치구’ 선정… 신규주차장 조성 등 호평

광주 서구가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행정서비스 부문에서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서구에 따르면 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한국서비스품질지수 인증 수여식에서 주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한 성과를 인정받아 전국 최우수 자치구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한국서비스품질지수는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국내 대표 서비스 품질 평가로 행정 서비스를 실제 이용한 주민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순위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높은 공신력을 자랑한다. 서구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주민 중심의 소통행정을 적극 추진해왔다. 대표적으로 구청장 직통 소통창구인 ‘바로문자하랑개’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민원을 문자 한 통으로 신속·정확· 친절하게 처리하며 행정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를 크게 끌어올렸다. 또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신규 주차장을 조성하는 대신 학교·아파트·종교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유주차장 확보로 행정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현재까지 확보된 공유주차장은 약 1600면에 달한다. 아울러 18개 동별로 지역 정체성과 문화를 반영한 BI(Brand Identity)를 발굴하고 주민 참여형 사업과 연계하는 등 마을 중심의 행정도 적극 추진 중이다. 특히 서구는 18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구청 민원부서를 대상으로 맞춤형 친절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시행한 결과 ‘기업보다 더 친절한 민원 응대’라는 평가를 받으며 주민 체감 만족도도 큰 폭으로 향상됐다.

윤용성 기자 yo1404@



강상구 신임 나주 부시장 취임… 정통 행정 전문가

에너지 수도 실현에 전력투구

나주시가 제22대 강상구 부시장(사진)을 새로 맞이하며 ‘에너지 수도 나주’ 실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선 8기 핵심 시정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나주시는 최근 강상구 전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이 제22대 나주시 부시장으로 취임했다고 3일 밝혔다. 담양군 출신인 강 부시장은 기획재정부에서 정부예산편성·정책조정부서에서 전남의 심부름꾼을 자임하며 굵은일을 도맡아 해온 일화로 유명하다. 이어 해남군 부군수, 전남도 기업도시담당관, 에너지산업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행정 전문가로 손꼽힌다.



특히 에너지산업국장으로 재직하며 3년간 에너지 수도 나주와 관련된 핵심 정책을 이끌어 지역 현안과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를 쌓았고, 2017년 전남도 혁신도시지원단장으로 빛가람페스티벌과 광주전남혁신도시 발전협의회 등도 이끈 바 있다. 강 부시장은 이날 별도의 취임식 없이 업무에 즉시 돌입하여 복합혁신센터 및 생활SOC복합센터, 영산강 국가정원 조성 예정지 등 주요 현장 방문을 통해 시급한 현안 사업을 직접 점검했다. 강상구 부시장은 “전기 주권과 에너지 패권 시대, 나주가 중심에 서야 한다”며 “윤병태 시장님의 시정 철학 아래 12만 시민과 함께 ‘영산강 르네상스’, ‘20만 글로벌 강소도시’ 실현에 전력투구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합현 기자 pose007@

한국광기술원-리투아니아 FTMC, ‘LOI’ 체결

한국광기술원은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리투아니아 레이저산업 기술협력 포럼’에서 리투아니아 국립 물리과학기술센터(FTMC)와 기술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다. 이번 LOI는 포럼의 식전 행사로 진행됐다. 양 기관은 초고출력 레이저, 화학물 반도체 레이저 등 산업용 레이저 응용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개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제 공동 R&D, 기술정보 교류, 공동 워크숍 개최 등 다각적 협력에도 뜻을 모았다. 포럼은 LOI 체결식을 시작으로 환영사 및 축사, 양 국의 키노트, 테크니컬 세션, 산학연 네트워킹으로 이어졌다. 포럼의 한국 측 키노트 연사로는 전성란 광기술원 수석연구원이 나서 450nm 파장대역 고출력 청색 반도체 레이저 다이오드(LED) 개발 현황을 소개하고, 응용 분야별 산업적 파급력과 기술 경쟁력을 중심으로 향후 비전을 제시했다. 이어 열린 테크니컬 세션에서는 김윤현 책임연구원이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 소재 제조, 광섬유 특성 평가, 모재 가공 기술 등을 발표하며, 한국광기술원이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용 특수 광섬유 레이저 기술 역량을 선보였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동구, 제4기 인문함께단 정기회의. 광주시 동구는 3일 동구인문함께단에서 제4기 인문함께단 전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회의를 열고 감사패 수여와 분과별 활동 성과 공유회를 가졌다. 사진제공=광주시 동구

전남도, 대구 치맥페스티벌서 고향사랑실천 캠페인

찾아가는 현장 홍보…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 가입 ‘발걸’

전남도는 뜨거워지는 여름을 맞아 대구에서 열린 치맥페스티벌 현장에 지난 2일 찾아가 전남 고향사랑실천 캠페인 홍보에 구슬땀을 흘렸다. 2013년 처음 개최된 이후 매년 누적 관람객 100만 명 이상을 유치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한 대구 치맥페스티벌은 대한민국 최대 문화관광축제 중 하나다. 축제장에선 김주찬 대구경북호남항우회장과 김명선 포항호남항우회장을 비롯한 항우회원 10여명, 전남도 직원이 무더위를 날려주는 열정과 함께 고향사랑 홍보 활동을 벌였다. 특히 전남 사랑에(愛) 서포터즈에게 제공되는 640여 할인가맹점과 전남도 대표 온라인쇼핑몰 남도장터 1만 원 쿠폰, JN투어 남도숙박 1만 원 할인 등 다양한 혜택에 가입을 원하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축제장을 방문한 한 관광객은 “전남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소중한 계기가 됐다”며 “서포터즈에 가입했으니 올 여름휴가는 전남에서 숙박·음식점 등 최대 55%의 다양한 할인가맹점에서 할인 혜택을 누리며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경문 전남도 고향사랑과장은 “전남을 사랑하고 응원하는 동반자가 된 서포터즈와 항우에게 감사 드린다”며 “7월 말 부산에서 열리는 2025 로컬 콘텐즈 페스타 등 대규모 축제·행사에 지속 참여해 전남 고향사랑 열기를 한층 끌어올리는데 온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znnews1@gwangnam.co.kr



광산구-조폐공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유통 활성화 업무협약. 광주 광산구는 3일 구청 2층 상황실에서 한국조폐공사와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광주시 광산구